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비온 뒤 산색은 푸르다

학승이 물었다. “두 개의 거울이 서로 마주 볼 때 어떤 거울이 밝은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의 눈꺼풀이 수미산을 덮는 구나.”

問 兩鏡相向那箇最明 師云 關黎眼皮蓋須彌山

산 밑에 가서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눈동자에 산이 비추어 있을 것이다. 그때 눈동자 주인이 눈을 깜박이면 산이 일시에 덮여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의 눈꺼풀 하나가 산을 보이게 하기도 하고 덮어버리기도 한다. ‘눈꺼풀이 수미산을 덮는다’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한 평가는 그대 주인공의 뜻에 맡기겠다는 의미이다.

거울은 정정 본성을 비유한 것이다. 정정 본성은 차별이 있을 리 없다. 누구의 본성도 밝음은 같다. 그러나 사 람에 따라, 선지식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본성이 빛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조주 선사는 원래 어렸을 때 부터 언변이 좋았다. 그래서 조주 선사는 평생 몇 마디의 말로 사람을 제정할 뿐, 때리거나 소리를 짹짹 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입제 선사는 할과 방을 즐겨 써서 사람을 제정 했으므로 두 선사만 해도 접화 방법이 다르다. 빛깔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입제 선사에게 가서 깨닫지 못하지만, 조주 선사에게 가서 도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조주 선사에게는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입제선

사의 할에는 금방 잠에서 깨어나고 마는 경우가 있다. 빛이 다르므로 그 빛에 반응하는 인연도 다르다. 다만 그리 할 뿐 누구 빛이 더 밝고 밝지 않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주인공의 뜻한 대로 평가할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저는 최근에 총림에 입문했습니다. 스님의 지시를 구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장천(蒼天), 장천(蒼天)”

問 學人近入叢林 乞師指示 師云 蒼天蒼天

장천(蒼天)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러서 감탄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너는 본래 맑고 맑다. 도대체 무엇을 닦고 배운단 말인가? 다만 너 자신이 완벽한 경지를 간직하고 있는 부처임을 스스로 알면 돼!”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다.

본 납자가 부연 설명하자면 “초심자라고? 아, 싱그러운 모습 그대로여! 더 이상 때를 묻히지나 말라. 가리켜 달라고? 말도 안 돼. 너는 그대로 붓다야. 그 무엇이 가리킬 것이 없어. 그러다가는 되래 때가 묻을 지도 몰라. 그대로 천년이고 만년이고 붓다의 길을 가라. 원래 세상은 밝고 티 한 점 없는 청정 세계야. 너의 인식을 바꾸라고. 말정 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 세상은 그야말로 낙원이고 창천이야.” 라고 말하겠다.

만일 학승이 “수행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까?” 하고 재차 묻는다면 “너는 본래 완성이야. 원래 행복해. 거기서 조금이라도 뭘 찾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단지 네가 붓다라는 사실만을 자각하고 붓다의 길을 가라.” 하고 말하겠다. 천하의 납자들이여, 나의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학승이 물었다. “전구(前句)는 이미 가버렸고 후구(後句)는 밝히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뭐라고 말하면 틀려버려.”
학승이 물었다. “스님께서 가리내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물어라(問), 물어(問).”

問 前句已往後句難明時如何 師云 喚作即不可 云請師分 師云 問問

사실 도를 드러내기 전에 뭐라 하는 것은 다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막상 도를 드러내는 말[後口]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이 되던지 알고 보면 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도를 논할 것인가? 조주 스님은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물어라 물어’ 하고 말하고 있다. 도의 세계를 말 몇 마디로 설교하는데 이력이 난 노승은 말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이다. 천하의 납자들이여, 조주 선사의 이 답변이 틀린 것인가 맞는 것인가? 내게 묻는다면 “비온 뒤에 산색은 푸르다”라고 하겠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죽음은 순식간에 덮쳐 오리라 모두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는 홍수처럼

불편한 진실, 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이전부터 있었을 터이지만, 이를 유행어로 만든 것은 일요일 밤의 한 개그프로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 이면서, 어떤 모순을 노출한다. 우리 스스로의 모순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만 웃고 만다. 이때 개그맨 황현희는 말한다. “왜 이라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개그프로에서야 웃음유도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통상 우리 스스로의 모순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다소 불편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진실을 ‘불편한 진실’이라 말하는 것이리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한 불편한 진실,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제시하는 것은 개그맨 황현희다. 그럼으로써 큰 웃음을 이끌어내려 한다.

사실 불편한 진실을 우리 눈 앞에 제시하신 분은 따로 있다. 부처님, 바로 그분이다. 어쩌면 부처님이야말로 시종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제시하는 것은 그 사명을 삼았던 분이 아닐까. 우리의 욕망에 영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욕망에 반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욕망의 덧없음을 보라고 말씀하신 분이기에 말이다. 오늘의 범구(法句, Dhammapada)를 감히 황현희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자.

“모두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는 홍수처럼 / 죽음은 순식간에 덮쳐 오는데 / 자식이나 가족 따위에만 마음이 팔려 / 어리석은 사람은 애착에 사로잡혀 있군요. / 왜 이라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왜 그러는 것일까. 잠시 뒤에 죽음이라는 홍수, 죽음이라는 쓰나미가 덮쳐 오면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버릴텐데, 왜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왜 자식이나 가족 따위에만 마음이 팔려 있는 것일까?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

내내 닥쳐올 홍수를 막강한 채, 아니 어쩌면 애써 인정할 수 없어서,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한 채, 우리의 정신을 놓게 만드는 그 무엇들은 무엇일 까? 그 목록에는 자식이나 가족만 들어 가는 것은 아니라. 아름다운 꽃 자태

에 낚을 잃은 사람인양 / 우리가 헛된 쾌락에 젖어 정신을 놓은 사이”, “어여쁜 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듯 / 부질없는 쾌락에 빠져있는 동안에”(등하 율김, 《법구경》, 열린 마음, 141-142쪽) 죽음은, 우리를, 야습(夜襲)해, 온다. 불침번도 세우지 않고, 깊이깊이, 잠든 우리를 ...

개그맨 황현희는 큰 웃음을 유도하지만, 부처님은 큰 성찰을 요구한다. 우선 자식이나 가족이나 어여쁜 꽃이나 그 무엇이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집착이 이내 닥쳐올 죽음을 감안하더라도 의미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죽음의 힘이라 하더라도 다 무화(無化)시킬 수



그림 · 박구원

없는 의미를 우리의 애착이나 사랑이 담고 있어야 한다면, 그 행위는 어떤 동기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 것일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 이니까”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애착 이상으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리라.

그 다음 홍수처럼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어야 한다. 앞의 문제는 금생의 문제이지만, 죽음에 대한 대비는 내생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의 삶 그대로 이어져도 좋을까? 아니면 더 못했던 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 하지 않을까? 그를 위한 우리의 대비는 어떠한가? 말하자면 ‘사후대책(死後對策)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업을 가지고 내생을 맞이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다.

죽음을 의식할 때, 즉 깨어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생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내생의 삶 역시 이제 준비할 수 있 으리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21>

삼과(三科)

불교는 인도의 외교(外教)나 서양철학 등이 설명하는 영원불멸의 본체나 실체를 주장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감각과 지각으로 인식 가능한 현상 세계만을 인정한다. 불교교리에 의하면, 우리에게서 시공간을 초월해 생멸변화를 넘어선 존재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존재자체를 증명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 가령 그 존재가 인식됐다고 해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상세계와는 무관하며 수행이나 깨달음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설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님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한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중시하고 수행정진에 힘을 쏟게끔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고,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상 세계에 한해서 고찰하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교단이 성립한 후 교리체계를 공고히 다져가는 과정에서 현상세계를 세밀하게 분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삼과(三科)이다.

불교에서 법(法)은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지만 ‘존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체법(一切法), 즉 ‘모든 법’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현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의 차이가 아닌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므로 모든 존재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삼과는 현실 세계의 모든 무상한 존재에 대한 분류법으로, 이 세 가지 과목을 (1) 오온(五蘊) (2) 십이처(十二處) (3) 십팔계(十八界)라고 한다. 이를 줄여서 ‘온(蘊)·처(處)·계(界) 삼과’라고도 말한다.

이 삼과의 개념은 불교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초 지식이다. 삼과를 이해해야만 불교적 세계관에 눈뜰 수 있고, 불교적 사고를 갖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교리인 만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재는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내용을 서술하기로 하고, 앞으로 삼 회에 걸쳐 삼과를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먼저 (1) 오온은 일체법을 몸과 마음, 혹은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섯 개의 요소로 나눈 것이다. 불자라면 익히 알고 있는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이 바로 그것이다. (2) 십이처는 일체법을 주관적인 감각과 인식, 객관적인 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한 것을 말

한다. 인간은 신체 기관을 통해 느끼는 감각기능과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신체기관을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로 나누고 육근(六根)이라고 부른다. 이 육근의 객관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으로 여섯 개의 대상이란 뜻에서 육경(六境)이라 한다. (3) 십팔계는 앞의 십이처 위에 감각과 지각의 인식으로서의 여섯 식별 작용, 즉 안식(眼識)·이식(耳識)·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의식(意識)을 더해 열여덟 종류로 나눈 것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해 현상 세계의 생멸변화를 보고, 그것들이 모두 무상하다는 것을 체득한다면 실로 욕계(欲界)를 벗어난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변화하고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끊임없이 갈구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게 된다. 그 번뇌의 대상과 이 세상의 흐름,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 상태의 모든 것이 이 삼과 속에 녹아 있다. 이러한 불교의 세계관은 현재의 과학이 사물을 규정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불교의 근대적 합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日 東國대 불교학사 · 前 본지기자

현상계 분류한 교리체계... 오온 · 십이처 · 십팔계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낙사 • 주 지 : 법정(노학도)
- 주 소 : 대구 동구 신암 1동 607번지
- 사찰명 : 성불사 • 주 지 : 법성(박근화)
- 주 소 : 대구 북구 팔달동 132-4
- 사찰명 : 용천사 • 주 지 : 법륜(황기석)
- 주 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588-23
- 사찰명 : 덕수사 • 주 지 : 수선(김종원)
- 주 소 : 경기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570-6

위 사찰들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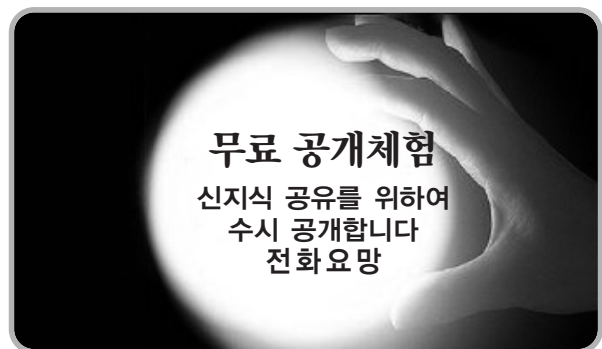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무료 공개체험
신지식 공유를 위하여
수시 공개합니다
전화요망

-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 ❖ 연 락 처 : 010-3463-7806
-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성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개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여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 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취를 해소

-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